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오전에 Korea Society에서 코참이 공동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늦은 점, 양해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리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8월 미 생산자 물가지수 0.2% 상승...예상치 부합
- WSJ: 바이든 행정부, 대기업 대상 15% 최저세 관련 대규모 규정집 발간

[미국 금융]

- CNNBusiness: 소매점 크레딧 카드 이자율 최고치로 상승

[미국 대선]

- TheEconomist: 미국 부채, 어느 후보가 해결할 것인가?

[중국 경제]

- TheEconomist: 중국 경제의 진짜 문제점
- WSJ: IEA “중국이 세계 석유 수요 약세 주도”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현대와 GM, 자동차 공동 생산 파트너십 모색
- WSJ: 크루즈 회사,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맞춤 서비스 제공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Producer Prices Rose 0.2% in August, as Expected

8월 미 생산자 물가지수 0.2% 상승...예상치 부합

- 8월 미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에 비해 0.2% 상승해 월스트리트 전문가 집계 예상치와 부합했다.
- 생산자 물가지수는 작년 동월과 비교해 1.7% 상승했다.

-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인 7월에 비해 0.3% 상승했다. 이는 예상치 0.2%보다 높은 수치이다.



WSJ 기사

WSJ: Biden’s 15% Minimum Tax on Big Companies Gets 603-Page Rulebook

바이든 행정부, 대기업 대상 15% 최저세 관련 대규모 규정집 발간

- 앞으로 커다란 수익을 내는 기업들은 최소 1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 연방 재무부는 오늘 목요일 기업을 위한 대체 최소세(CAMT)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6백3페이지 분량의 규정안을 발간했다.
- 이 구체적인 방안은 연방의회가 관련 세금법을 통과시키고 발효된 지 20여개월이 지난 뒤에 발간된 것이다. 이 방안은 기업의 재무 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반 법인세 제도와 함께 운영되며, 해당 기업의 법인세 제도의 정의와 계산법을 설명하게 된다. 이 법안은 15%에 해당하는 세금 해당 항목과 소득에 해당하는 방법을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WSJ 기사

[미국 금융]

CNNBusiness: Retail credit card interest rates reach record high**소매점 크레딧 카드 이자율 최고치로 상승**

- 최근 주요 소매업체들이 발생한 크레딧 카드 108개의 이자율을 조사한 Bankrate에 따르면 카드 이자율은 이 회사가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래 최고치로 상승하고 있다.
- 평균 카드 이자율은 지난 2021년 24.35%에서 30.45%로 인상됐다. 이는 현재 일반 크레딧 카드의 평균인 21%보다 훨씬 높다.
- 예를 들어 아래 13개 소매 체인의 카드 이자율은 34.99%로 나타났다 : Athleta, Banana Republic, Nordstrom, JCPenney, Old Navy, American Eagle, T.J. Maxx, HSN, Walgreens, QVC, Tire Rack.

CNNBusiness 기사

[미국 대선]

TheEconomist: America has a huge deficit. Which candidate would make it worse?**미국 부채, 어느 후보가 해결할 것인가?**

-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의 재정 적자와 부채를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카밀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 두 대통령 선거 후보의 국가 재정 공약은 별로 진지하지 않다. 트럼프는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 암호화폐나 석유 시추 같은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해리스는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 예산 전문가들은 후보들의 정책을 보고 누가 더 많은 적자를 낼지 계산해 봤다. Penn Warton Budget Model(PWBM)에 따르면 해리스 후보의 정책은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 적자를 1조2천억달러 추가하고, 트럼프 후보의 정책은 그보다 5배 많은 5조8천억달러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트럼프 정책은 경제 성장에 더 유리하다. 이를 감안하면 트럼프의 정책은 재정

적자를 4조달러 추가하고, 해리스의 정책은 2조달러 추가한다. 연간 GDP를 기준으로 현재 6%에서 트럼프는 8%까지, 해리스는 7%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정확한 예측을 어렵게 만든다. 그는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관세 10%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관세 60%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에 따르면 이러한 관세가 향후 10년간 정부 수입을 약 2조8천억달러 감소시킬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다른 국가의 대응 같은 2차적 결과는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보복 관세로 인해 미국 수출이 방해받고 경제가 타격을 입으면,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기대하는 만큼 재정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TheEconomist 기사

[중국 경제]

TheEconomist: The real problem with China's economy

중국 경제의 진짜 문제점

- 중국의 거대한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 정확한 정보의 부족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부동산 폭락과 씨름하고 있고,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외국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 이러한 암울한 상황은 중국 부동산 부실채권 문제와 관련 정보에 대한 불신이 반영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데이터를 조작하고 민감한 사실을 은폐한다. 이것은 단순히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몇십년 후퇴시킨다. 소련과 마찬가지로 독재가 비자유적일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란 것을 보여준다.
- 1930년대와 1940년대 전체주의를 목격한 칼 포퍼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같은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성공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분산된 권력과 정보는 폭압을 방지하고 수백만의 기업과 소비자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했다.

- 경제보다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는 중국 공산당은 정보의 흐름에 간섭하고 있다. 정보 공백이 발생하면 가격 신호가 희미해지고 자본 배분이 어려워진다. 잘못된 수요와 공급 계산에 기반한 투자가 이뤄지거나 보조금과 수익에 대한 데이터가 억제되면 성공하기 어렵다. 정보가 억압되면 권력과 부패의 원천이 된다.
- 완전히 개방된 시민사회, 민간 섹터와 정부가 이러한 도전에 훨씬 잘 대응하게 해준다.

TheEconomist 기사

WSJ: China's Rapid Slowdown Drives World's Oil Demand Growth Downturn, IEA Says

IEA “중국이 세계 석유 수요 약세 주도”

-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중국의 석유 수요 성장 둔화로 인해 전 세계 소비가 감소해, 2020년대 말 최저치를 찍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IEA는 올해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량을 기존 하루 97만 배럴에서 90만3천 배럴로 하향 조정했다. 두 달 연속 하향 조정이다.
-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율은 계속 둔화해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전년 대비 하루 80만 배럴 증가를 기록했다. IEA는 중국의 부동산 침체와 전기차 증가를 석유 수요 성장 둔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뽑았다.
- 중국의 7월 소비는 4개월 연속 하루 28만 배럴 감소했다. 올해 중국 석유 수요는 하루 18만 배럴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하루 평균 약 100만 배럴의 성장 속도와 비교되는 수치다.
- OPEC이 생산량 증가 계획을 2달 연속 미뤘지만, 글로벌 수요 감소와 내년 공급 과잉 우려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없었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71달러에,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배럴당 6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열대성 폭풍 Francine에 의해 미국 해상 석유 및 가스 시설 생산 중단 우려로

선물 가격은 소폭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수요 전망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GM, Hyundai Explore Partnership to Develop Vehicles Together

현대와 GM, 자동차 공동 생산 파트너십 모색

- 두 회사는 철강과 전기차 배터리 재료의 비용을 공동으로 줄이고 심지어 자동차의 공동 개발과 생산도 함께 하는 파트너십을 검토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이 두 회사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를 공동으로 개발시키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비강제적인 합의에 들어갔다. 이들은 현재로서는 자세한 사항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 합의가 완료되면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GM 책임자인 Marry Barry는 이 두회사는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능력과 인재가 있다며 보다 경쟁적인 차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SJ 기사

WSJ: Cruise Companies Cater to Millennials With Quick Escapes, Private Islands

크루즈 회사,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젊은 세대의 크루저 여행이 늘고 있다. 이들은 저렴하고 색다른 여행을 원한다. 크루즈 업계는 짧은 여행, 프라이빗 섬(크루즈 회사 소유 섬), 안정적인 인터넷 등이 젊은 여행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 세계 3대 북미 크루즈 운영사 Royal Caribbean에 따르면 승객 절반이 밀레니얼 세대 이하이다. 크루즈 라인 국제 협회(Cruise Lines International

Association)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가 전 세계 크루즈 여행객의 20%를 차지하고, 12세~17세인 Z세대까지 포함하면 36%까지 차지한다.

- 분석가들은 코로나19 제한 조치 완화 이후 호텔이나 항공사와 다르게 크루즈 회사는 가격 인상이 느렸으며, 육상 여행보다 30% 저렴하게 오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크루즈 회사들은 목표 시장의 연령대에 맞춰 평균 7일보다 짧은 3~4일 정도의 짧은 크루즈 여행, 프라이빗 섬 매입 및 개선, 안정적인 인터넷 등에 투자하고 있다.

WSJ 기사

[보고서]

**예상보다 더딘 美물가둔화...연준 0.5%p 금리인하 기대 '급냉각'
0.5%p 인하 전망 34%→17%로 반토막...채권시장 0.25%p↓ 전망 대세
"인플레 가속화하지 않았지만 둔화되지도 않아...신증 이유 제공"**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출 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사라졌다.

물가가 많이 내려와야 금리도 많이 낮출 텐데 물가 상승세 둔화 속도가 생각만큼 빠르지 않으니 금리도 과감하게 내리지 못하고 0.25%포인트만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8월 명목 CPI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5% 상승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